

6.15남북공동선언 14주년 기념토론회 기조강연. 일본 나고야 2014.7.6.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한국의 과제>

임 동 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삼천리철도가 6.15남북공동선언 기념토론회를 금년에도 이곳 나고야에서 개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都相太 이사장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바입니다.

NPO법인 삼천리철도는 끊어진 경의선과 동해선 DMZ구간 연결공사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일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 감사와 경의의 표시로 4년전 삼천리철도 도상태 이사장에게 한겨레통일문화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일본국 전 내각관방장관 노나카히로무(野中広務)선생과 고도쇼이치(近藤昭一) 중의원 의원 그리고 사회를 맡으신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전환기의 동북아] 오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이 토론회가 시기적으로 아주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 아베내각은 헌법 해석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함으로써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 '전쟁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나라'에서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더욱 긴장되고 민족주의 감정은 고조될 것이며 동북아의 안보불안과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일본에 대한 역사와 영토 문제 등에서 공동보조를 모색해온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공동성명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공동대응 문제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동아시아는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고도경제성장을 해온 중국이 미국과 함께 양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국의 GDP가 2020년경에는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력 강화는 군사력의 증강을 수반하게 될 것이고 국제적 영향력도 확대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이 유일초대강국으로 일방적으로 국제질서를 이끌던 시대는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친 군사적 확장

으로 인한 경제의 쇠퇴가 국력의 상대적 쇠퇴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상당기간 군사, 과학기술, 문화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미국은 2012년경부터 경제재건과 패권의 재건축을 위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선언하고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보측면에서는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팽창 가능성을 견제하고, 경제측면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하여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장을 차단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하고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균형전략의 중심에는 핵심파트너인 일본과의 동맹 강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한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 중국의 해양진출을 감시 견제하고자 하며 일본의 군비증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균형전략에 힘입은 일본 아베수상과 집권세력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60년간 유지해온 전수방위원칙을 버리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배경으로 아베수상은 '전후체제에서의 탈각'을 주창하며 야수쿠니신사 참배로 내셔널리즘을 부추기고 역사수정주의와 영토분쟁이 격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일본 국민들과 아시아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미-중 양강구도는 냉전의 부활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미-소 냉전은 양대 진영 간 '철의 장막'을 치고 경제적 문화적 관계가 모두 단절된 가운데 이데올로기 대결과 핵무기 경쟁 및 군사적 확장을 특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미-중의 전략적 관계는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는 평화적 협력과 경쟁을 유지하지만 정치와 군사 분야에서는 서로 견제와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형태의 대국관계 수립을 주장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존의 패권 강대국과 부상하는 신생강대국 간에는 마찰과 충돌이 빚어졌으며 마침내는 전쟁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란 초강대국 미국과 신생강대국 중국이 서로 상대방의 핵심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협력하면서 평화적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배워 윈-윈의 새 모델을 만들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군비경쟁과 무력충돌 그리고

전쟁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다만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첨단무기 개발은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그의 저서 중국론(On China)에서 미-중관계가 승패의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방에 의해 지배당하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대국이요, 경제 강국이다. 아무도 전쟁이나 냉전시대와 같은 형태의 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상호보완적 이익을 추구하며 공동의 번영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공진론(co-evolution)'을 제창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反중국 블록 형성 기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태평양공동체 형성을 주장합니다.

협력적인 미-중관계는 동북아에 축복으로 다가오겠지만 대결적인 미-중관계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서로 위협이 되고 대결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과장하고, 왜곡된 판단을 통해 불신하고 갈등하며 불행한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보 협력 평화공동체 형성이 긴요하다 하겠습니까.

[미-중 양강시대의 한국]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한국의 과제는 무엇보다 먼저 한국이 격동의 시기에 대처하는 올바른 입장과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중국이 강대해지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위협이 된다는 경계론에 따라 지금까지 지속해온 한-미안보동맹을 계속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장된 중국 위협론에 휘말리지 말고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현실로 받아드려 미국과 함께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규모(+ $\$2300$ 억)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 두 나라와의 무역을 합친 것($\$2000$ 억 수준)보다 더 많아졌고 우리의 무역적자를 메워주는 것도 대 중국 무역 흑자(+ $\$600$ 억)입니다. 한-중 무역과 경제협력은 계속 증가추세이며 중국은 이제 한국에는 분리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무역동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또한 중국의 점점 높아가는 안보측면에서의 위상과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중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지만 사실상 이미 '한-미동맹을 유

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라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미국을 배척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한국은 안보 자율성을 증대시키면서 균형외교를 통해 국익을 증대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의 갈등 해소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반도평화 없이 동북아의 평화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0년이 되었으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 군사정전체제 하에서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남북한이 6자회담 9.19공동성명(2005년)을 통해 합의한 대로 관련당사국(미국 중국 남북한) 평화회담을 개최하여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이 북한과 힘을 합쳐 4자평화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또한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준수 이행을 확약하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며 상호신뢰를 다져나가야 합니다. 先핵문제 해결 後평화가 아니라 양자를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자평화회담은 한반도평화를 보장할 실질적인 조치들, 이를테면 남북 대결관계와 미-북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와 비핵화,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 그리고 외국군 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는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문제가 미-중 갈등과 분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통해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공동체] 한국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평화공동체 형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한미일 3국의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긴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 노력을 평가하며 좋은 결실을 기대합니다.

지역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러가지 담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북핵문제를 다루어온 6자회담을 모체로 시작하되 필요에 따라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는 주장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하여 잠재적 갈등요인과 군사적 긴장요인을 해소해 나가며 공동안보를 구현하는 한편 경제·통상·환경·테러·국제범죄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지역협력 평화공동체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국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역내 국가들이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안전 테러대응 등 협력이 용이한 연성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협력 범위를 넓혀나가면서 기존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체를 보완하여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공고한 다자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참여국 모두가 수용하기 쉬운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입니다.

[동북아 3국의 협력] 한중일 3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매우 밀접하고 가까운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동북아는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으로서 공동번영을 선도할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3국이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 발전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일-중 사이에서 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한중일 3국은 이미 정례화해온 3국정상회담을 잘 운영하고, 그 산하에 2011년 가을 서울에 설치한 3국협력사무국을 활성화하여 공동의 관심사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3국간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민교류와 문화교류를 증진해 나가면서 역사 및 영토 문제와 역내안보 및 외교 갈등 문제 등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한일관계의 조속한 회복이 긴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힘을 합쳐 정치적으로는 미-중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주도하고 더 나가서는 동북아 안보 협력 평화공동체 형성을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겪은 아시아인들에게는 평화헌법 제9조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전후 일본국민들의 진지한 결의로 받아드려지고, 그럼으로써 아시아인들의 신뢰를 받게 하는 자산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9조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스스로 과거를 바르게 인식하고 겸허하게 반성하는 결단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은 우선 평화헌법 제9조를 지킴으로써 자국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아시아인들은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주의를 관철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평화헌법 제9조를 지키려는 도덕적 용기를 갖고 투쟁하는 수많은 일본의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